

“봉사자와 대상자 노인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윈윈 사업”

글 **민준**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2017년 노노케어 컨퍼런스에는 36개 협력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3.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본 등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됐다.

아산재단에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독거노인 지원사업인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시작했다. 노노케어 사업이란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 확인과 말벗 봉사를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전국 1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선발한 330명의 봉사자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1천여 명의 전화 말벗이 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6개 기관 730여 명의 봉사자가 독거노인 1,740명의 말벗 봉사를 하고 있다.



노노케어 사업을 진행한 기관들의 사례 발표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과 컨퍼런스의 인사말과 총평을 맡은 최재성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독거노인의 삶 바꾸는 의미있는 사업

아산재단은 노노케어사업 협력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년 노노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2017년 컨퍼런스는 참가 규모를 확대해 사업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접 말벗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컨퍼런스는 아산재단 이사인 최재성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최재성 교수는 인사말에서 "2015년부터 시작한 아산재단의 노노케어 사업은 아산재단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많은 독거노인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고, 노인봉사자들도 보람을 이야기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노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만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산재단과 노노케어 협력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재단에서는 노노케어 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협력기관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노인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지원센터 상임팀장의 '독거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특강이 진행됐다. 이 팀장은 "독거노인은 우울, 치매, 알코올 의존, 약물중독, 자살 등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며, 전국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서 교육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재단의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사업담당자와 봉사자의 관심이 독거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밝아진 모습에서 보람 느낀다”

다음은 사업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사례와 교육사례 발표시간으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업사례 발표자로 나선 조혜원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복지팀장은 3년차 사업수행기관의 담당자로서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발표했다. 조 팀장은 "안부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봉사자와 독거노인 사이에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했으며, 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파악하면서 복지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민주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봉사자와 독거노인이 안부전화 외에 도예 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감소했으며,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봉사자 모집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봉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말에 각 사업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사례 발표자로는 이정연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나



봉사 소감을 발표하는 함월노인복지관의 이영숙 봉사자와 '지란지교 봉사단' 운영 경험을 전하는 조혜원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복지팀장(왼쪽부터).

섰다. 평화종합복지관에서는 자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봉사자들에게 생명지킴이 교육과 노인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이 고령의 노인이어서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는 사진자료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직접 전화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자이므로 봉사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거노인의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운영하는 유민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팀장은 “봉사자를 교육할 때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과 협약체결, 자문단 구성 등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노인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봉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사례발표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봉사하는 노인 봉사자가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며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전전길(73) 봉사자는 “외로움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독거노인의 밝아진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고, 내 생활도 즐거워졌다”며 “봉사 이상의 것을 얻고 있다”고 말해 노노케어 사업이 대상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사업임을 증명했다. 함월노인복지관의 이영숙(67) 봉사자는 “비슷한 연배의 독거노인을 만나며 그들의 고독감과 상실감에 공감할 수 있어서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내 자신보다 주변을 둘러보며 지역의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다”고 느낀 점을 전했다.

노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의미있는 사업

봉사자들의 소감 발표 후에는 최재성 교수의 총평으로 컨퍼런스가 마무리됐다.

최재성 교수는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전쟁과 보릿고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노인들이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보람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모든 생명체가 햇볕을 쬐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쬐어야 사람답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담당자들이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아산재단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총평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노노케어 컨퍼런스는 마무리 됐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컨퍼런스는 36개 협력기관 모두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행사에 참가한 사업담당자와 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손민기 부산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신규 협력기관들은 2년차 협력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며 컨퍼런스의 장점을 말했고, 이상희 홍천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사업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고, 현재 사업들을 되돌아보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노노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자문교수는 물론 봉사자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산재단의 노노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가꿔나가기를 희망해본다. 🌱